

‘언터처블’, 역대급 대반전과 함께 종영

‘시가순삭 드라마’ 답게 시청자 사로잡아 진구·김성균·박근형 등 진가 재확인

JTBC 금토드라마 ‘언터처블’이 지난 20일 16회 방송을 끝으로 종영했다.

지난 20일 방송된 ‘언터처블’ 마지막회에서는 장범호(박근형)가 그동안 흑령도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가둬놓고 그들에게 자신을 신격화하는 세뇌교육을 펼쳐왔다는 충격적인 실체가 밝혀졌다. 더욱이 이같은 정신교육을 받은 장범호의 수하들이 북한 곳곳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장씨 일가가 북한을 지배해 온 방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준서(진구)는 아버지와 같은 극악무도한 방법이 아닌 법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밝혀내며 악으로 대물림된 장씨 일가의 권력 세습을 끊어냈다. 반면 기자(김성균)는 주대섭(조재룡)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며 아버지의 길을 걷는 듯 보였지만, 종국에는 장범호에 의해 위협에 처한 자경(고준희)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던지며 죽음을 맞이했다.

‘언터처블’은 ‘시가순삭 드라마’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마지막회까지 충격과 반전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역시 진구-김성균-박근형! 연기 진가 재확인

역시 진구-김성균-박근형이었다. 세 사람은 부패한 권력을 물러간 형제의 대립과 이를 지켜보는 부패 권력의 중심인 아버지의 감정을 세세하게 연기하며 역대급 몰입감을 선사했다.

진구는 눈빛장인으로 거듭나며 매회 화면을 압도했다. 아내를 향한 달달한 눈빛부터 형 기서를 향한 분노자신의 손으로 직접 가족을 처단해야 하는 비운에도 정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뚝심 있는 장준서를 완벽하게 그려냈다. 더욱이 진구는 옥상 추격전, 폐차장 격투전 등을 통해 섬세한 감정 연기를 불려 몸은 사리지 않는 유려한 액션까지 가능한 민중 연기자임을 입증했다.

김성균은 악역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김성균은 나약함을 숨기기 위해 더욱 악랄하게 자신을 체찍잡고 가둘 수 밖에 없던 장기서라는 인물에 세밀하면서도 폭발적으로 표현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아버지를 향한 공포와 원망, 사랑하지만 다른 길을 갈 수 밖에 없



었던 동생 준서를 향한 애뜻함까지 완벽 표현하며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연민을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마지막회에서는 아버지가 될 수 밖에 없던 기서의 광기와 동생 준서를 향해 보인 눈물 연기는 시청자들의 깊은 여운을 남겼다. 더불어 박근형은 명실공히 연기

거장다운 면모를 자랑했다. 박근형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캐릭터 장범호를 연기하며 극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매 장면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다. 특히 마지막회 엔딩에서는 일제 군복을 입고 자신을 신이라 지칭하는 장범호라는 절대적인 악을 표현하며 시청자들의 뇌리

에 강렬하게 각인됐다.

◆강렬한 메시지! 인간의 욕망-부패 권력층에 대한 날선 비판!

‘언터처블’은 부패 권력과 이에 물든 인간의 욕망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며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다.

‘언터처블’은 권력을 중심으로 여러 인간의 군상을 조형했다. 장범호와 구용찬(최종원)을 통해 맹목적으로 권력을 탐하며 비인간적인 행위를 일삼는 인물에 대변하고, 준서(진구)를 통해 이 같은 거대 권력과 맞서는 정의의 세력을 표현했다. 더불어 기서-자경은 부패한 권력의 희생양을 대변했다.

나아가 에피로그에서는 권력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장범호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그려내며 마지막 순간까지 권력을 향한 경계의 메시지를 던졌다.

노아르 장르의 신기원 열었다 ‘언터처블’은 한 차원 다른 노아르 장르를 안방극장에 선물했다. 웰메이드 노아르답게 화려한 액션, 속도감 있는 전개로 눈 끌릴 틈 없는 몰입감을 선사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노아르 장르가 가진 특징인 극명한 선악구도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 특별했다.

‘언터처블’은 극의 중심이 되는 준서-기서 형제의 관계를 단순한 적대관계로 그려낸 것이 아니라 의심과 갈등, 애정과 죄책감이 뒤엉킨 애잔하고 아이스하트 관계로 그려냈다. 선 굵은 정통 노아르의 특징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그 안에 인물의 세밀한 감정선을 적절히 녹여내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노아르를 탄생시켰다.

‘무한도전’ 하하-양세형-조세호, 시청률 잭팟 터졌다



‘무한도전’ 하하-양세형-조세호가 웃음 잭팟을 터트렸다.

20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 (기획 김태호 / 연출 임경식, 김신영, 정다희 / 작가 이인주) 554회에서는 하하-양세형-조세호가 특집 ‘시간 전’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집 ‘시간 전’의 미션으로 이들은 각각 철순잔치 축하 공연부터 호찌민행 승무원, 동장군 기상캐스터로 변신했는데 놀라운 순발력과 적응력으로 완벽하게 미션을 성공한 것은 물론 예측불가 상황 앞 세 사람의 모습은 안방극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어떤 상황이건 최선을 다한 이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극찬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토요일 전

체 예능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무한도전’은 수도권 기준 13.3%, 전국 기준 12.7%를 기록해 토요일 전체 예능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동장군 기상캐스터로 변신한 조세호의 미션 모습은 (19:42)은 17.3%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무한도전’ 멤버들은 사상 초유의 한파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으로 온라인을 통한 재택 오프닝을 진행했다. 여기서 이들은 라면 먹방을 선보이며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어 이들은 특집 ‘시간 전’ 미션을 받으며 격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특집 ‘시간 전’의 1탄으로 하하-양세형-조세호의 미션 수행 모습이 그려졌다.

조세호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MBC ‘뉴스투데이’에서 총 7회의 기상예보 중 3회를 담당하게 됐다. 이 귀주 기상캐스터의 실제 방송을 모습과 잠깐의 숙성 괴물을 받은 조세호는 첫 방송에서 한파주의보와 서울 기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

일瞥결에 동장군으로 변신까지 하며 남은 2번의 방송을 이어갔는

데, 점차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기대를 끌어올렸다. 조세호는 날카로운 추위와 생방송이라는 긴박한 환경 속에서도 미소를 유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녹이기 충분했다. 행커의 갑작스런 질문에 대답자판기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는데, ‘무한도전’에 합류한 소감을 묻자 그는 너무 기쁘다며 “오늘 날씨는 춥지도 않습니디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조세호는 완벽한 날씨 예보에 이어 시민들과 인터뷰까지 시도했는데 추운 날씨로 생각처럼 되지 않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조세호는 능숙하게 멘트를 이어가며 방송시간을 딱 맞춰 뉴스센터 스태프들의 극찬을 받기도 했다.

짧은 시간 동안의 준비로 완벽하게 미션을 수행한 하하-양세형-조세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물해줬다. 또한 실제 현장의 시민들과 스태프들에게도 뜻깊은 추억과 힘을 불어넣어줬다. 방송 말미 특집 ‘시간 전’의 2탄으로 유재석-박명수-정준하의 모습이 이어지며 다음주 방송에 대한 기대를 더욱 끌어올렸다.

한편 유재석-박명수-정준하-하하-양세형-조세호 등 여섯 멤버와 함께하는 ‘무한도전’은 시간이 더해질수록 더욱 최정수준의 도전을 통해 한 층 더 진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메이즈 러너’ 박스오피스 1위 · ‘그것만이 내 세상’ 60만 돌파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가 4일째 박스오피스 정상을 달리고 있다. 21일 오후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20일 박스오피스 1위는 30만16734명을 동원한 영화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 (감독 웨스 볼)이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 94만 5021명이다.

인류의 운명이 걸린 위키드의 위험한 계획에 맞서기 위해 다시 미로로 들어간 토마스(딜런 오브라이언)와 러너들의 마지막 생존 사투를 그린 작품이다. ‘메이즈 러너’ 시리즈의 마지막 완결점으로, 역대급 스케일과 액션을 선보인다.

2위는 ‘그것만이 내 세상’ (감독 최성현)으로 이날 26만9781명의 일일 관객을 동원했다. 누적 관객수는 68만2557명이다. 한물간 전직 복서 사범트 증후군 동생 진태(박정민). 살아온 곳도, 잘하는 일도, 좋아하는 것도 다른 두 형제가 난생처음

만나 펼치는 이야기로 그린 영화다.

‘코코’ (감독 리 언크리치)는 3위에 이름을 올렸다. 23만 5553명의 일일 관객을 동원했고 누적 관객수는 157만 1461명이 됐다. ‘코코’는 뮤지션을 꿈꾸는 소년 미구엘이 우연히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기묘한 모험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화려한 영상미와 완성도 높은 애니메이션을 선보여 온 디즈니 픽사의 작품이다.

4위 ‘1987’ (감독 장준환)는 일일 관객수 19만18197명을 동원했고 누적 관객수는 649만2974명이 됐다. ‘1987’은 1987년 1월, 스물두 살 대학생이 경찰 조사 도중 사망하고 사건의 진상이 은폐되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냈던 사람들의 가슴 뛰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배우 김윤석, 하정우, 김태리, 유해진 등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이 감동을 자아낸다.

‘신과 함께: 죄와 벌’ (감독 김용화)은 일일 관객 14만9487명을 동원해 5위가 됐다. 누적 관객수는 1340만8511명이다. ‘신과 함께: 죄와 벌’

은 저승에 온 망자가 그를 안내하는 저승 삼차사와 함께 49일 동안 7개의 지옥에서 제판을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주호민 작가의 웹툰 ‘신과 함께’를 원작으로 했으며, ‘국가대표’ ‘비스터’를 연출한 김용화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6위는 ‘쥬만지: 새로운 세계’ (감독 제이크 캐스던)다. 2만2832명의 일일 관객을 동원해 168만2527명의 누적 관객수를 기록했다. 해당 영화는 어느 날 쥬만지 비디오 게임으로 빨려 들어간 아이들이 현실로 돌아오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아비타로 목숨을 건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위대한 쇼맨’ (감독 마이클 그레이시)은 일일 관객수는 1만9822명을 동원해 7위를 유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127만778명이다. 해당 작품은 쇼 비즈니스의 창시자 바둑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다.

8위는 한 계단 상승한 ‘원더’ (감독 스티븐 크보스키)가 차지했다. 일일 관객수는 5346명, 누적 관객수는 19만9646명이다. ‘원더’는 헬멧 속에 자신을 숨겼던 아이가 처음 만나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며 진짜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를 전하는 이야기로 담은 영화다.

‘다들 뽀빠이어’ (감독 리하르트 클라우스)도 한 계단 상승해 9위에 도착했다.

오늘의 순세 2018년 1월 22일 월요일 (음력 12월 6일)



▶**새끼** 재운도 있으나 지출도 많다. 소원하던 일이 이뤄지거나 자녀로 인해 신경 쓸 일 생긴다. 옛 친구가 찾아와 반가운 소식 들겠으나 허전한 마음은 매일반이다. 가슴으로 사랑하라. ○, ㅈ, ㅎ 성씨 과목은 삼갈 것.



▶**새끼** 타인을 무시하면 결국 자신도 존경받을 수 없는 법. 자만심은 절대 금물이다. 겸손한 자세로 자기 일에만 초지일관하라. 현재 풀리지 않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고려해 근면하라. 1, 7, 11월생 자식으로 인해 근심 있을 듯하다.



▶**새끼** 풀리지 않던 어려운 일이 상사나 동료들의 도움으로 해결되고, 당신의 고지식했던 성격이 부드럽게 풀리는 하루가 되겠다. 미혼자는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진행할 때 좋은 소식 들린다. 1, 5, 9월생 적극성을 보이라.



▶**새끼** 열심해 해도 별로 실적이 없다 생각하지 말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좋다. 사소한 일로 부부간 지나친 자존심을 내세우다 큰 화근을 서로 자초할 수 있다. 4, 8, 12월생 가정 화목이 자녀 탈선을 막는 길임을 알라.



▶**새끼** 남에게 힘이 돼주려다면 정신과 육체를 동일해 진심으로 도와주라. 사랑하려면 애낌없이 하되 가식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 사랑은 오늘보다 내일의 발전을 기대하며 사는 이기적인 동물임을 알라. 북쪽 유혹은 물리치라.



▶**새끼** 주위에 사람이 많으나 실상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없다. 사람을 믿지 말고, 선택하는 데 각별히 신경 쓸 것. 1, 3, 11월생 남녀 관계로 마음고생 하겠으나 신중히 판단하라. 동, 북쪽에 길이 있다.



▶**새끼** 의욕이 상실돼 중도 포기할 염려가 있다. 애정은 참견보다 대화로 감싸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 냉정함을 풀라. 변동이나 새로운 것을 구상해도 힘이 못 미쳐 생각만으로 끝나기 쉽다. 9월생 자신을 억제할 것.



▶**새끼** 소자본이라도 과감히 투자하면 생각보다 득이 크다. 진실함과 근면함으로 찬사를 받겠다. 어려운 일은 타인에게 협조를 받아 이루는 수. 애정은 남자 쪽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다. 3, 5, 9월생은 자신감 유무가 승리를 좌우한다.



▶**새끼** 마음만큼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 답답한 상태다. 그러나 미련을 버리라. 그런 다음 희망을 품고 전진하라. 가정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날이다. 건조한 생산직 종사자는 뒷일을 생각하라. ㅈ, ㅊ, ㅎ 성씨 건강에 신경 쓸 때.



▶**새끼** 심신이 피로하니 집안일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 쓸데없는 낭비라 생각하지 말고 귀찮을 때 꼭 신문을 사라. 마음이 한층 편할 것이다. 4, 7, 12월생 투기로 한 몫 보려는 욕심은 버리고, 한층 한층 쌓는 기쁨을 맛보라.



▶**새끼** 동, 남쪽에 이력서가 넣으면 통지가 온다. 갈증이 난다고 물을 급하게 마시면 체할 수 있으니 순리대로 서서히 음주하라. 큰 욕심을 내지 말라. 손재주가 따른다. 의료, 지물 종류 업체는 길하다.



▶**새끼** 물에 흠뻑 젖었다고 목욕탕에 못 가지는 않는다. 내 것인데, 남의 것인데 흥은 있기 마련.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듯 구설로 시비가 오려된다. 자기 관리를 잘할 것. 소, 개, 용띠에게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은 삼가라.